

# 박 대통령 빠진 탄핵심판 첫 변론 '연기'

### 2회 변론기일 5일로... 박한철 헌재소장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9번 만에 막없이 끝났다. 이로써 오는 5일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헌재소장은 앞으로 진행할 절차와 관련해 양측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헌재소장은 "현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평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 절차 진행에 적극 협력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을 제외하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인신청 필요한 범위에서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오는 5일까지는 신청하신 증인 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반드시 정리해 주고 증인신문 의견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헌재소장은 또 "오는 10일까지는 각 증인에 대해 원하는 신문시간도 밝혀달라"고 말하고 "오는 5일 열린 2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오후 3시, 윤전주·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국회 측에 오는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순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순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 불출석은 이미 예상됐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듯 지난 27일 열린 2회 준비기일에서 이날 첫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오는 5일로 2회 변론기일마저 함께 결정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은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제가 만약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종희(김제·부안)국회의원이 지난 3일 부안을 국민 의당 사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종희(김제·부안)국회의원이 지난 3일 부안을 국민 의당 사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해 왔으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늘 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며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정의롭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한계가 있었으나 소처럼 묵묵히 국회 일정을 소화하며 전개해 첫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김제·부안 지역건설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2016년 대비 50%를 증액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 부었고 정부가 편성한 지역예산 원안에서 국회 개원 후 특별교부세 58억3000만원 확보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또 농어촌상생기금법 1조 원 조성 원안 통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100억 증액 확보에도 앞장서 서두름이나 욕심도 없고 피도 부리지 않으며 그저 평생토록 주인을 위해 일한다"며 "부안, 김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가 될 각오로 열심히 지역민들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담 자리에서 "사실 조선의원으로서 적응하느라 작금의 애를 먹었다며 속내를 털어놓고서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늘 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며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정의롭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한편 김종희 의원은 2016년도 제22회 한국인물대상 의정공로부문을 수상했으며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부안=이복수 기자

## 특검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자진 귀국 가능성"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급해달라는 조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며 "후추 범죄인도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인도구속 절차 중이라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자진 귀국 가능하다

고 본다"며 "덴마크 법원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할 경우 즉시 자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말할 수 없다"며 "(구속 여부는) 송환 후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자진 귀국이 정씨의 신병을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주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씨와 접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범죄인 인도 청구 과정이 길게

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이 과정 동안 정씨가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하는 만큼, 자진 귀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 그런 상황(구금)이 오래 지속될 경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인인도청구에 계속 대응하기보다는 자진 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특검팀은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특검 수사 기한 내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크게

## 정씨 불구속 수사 요구 거부 강제 추방 절차 진행 중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신병확보가 가능한 강제 추방 절차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전날 주덴마크 대사를 통해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30일째 여권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수사팀 인력을 덴마크 편지로 보내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특검팀의 수사 기한 내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개혁보수신당 '깃발' 26년만에 4당 체제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이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더이상 공당이 아니다"라며 집단 탈당하며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탈당과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신청하면서 20대 국회는 원내 4당 체제로 전환됐다.

4당 체제는 1990년 평화민주당을 제외한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기 직전 이뤄진 이래 26년 만이다. 1차 탈당에 참여한 의원은 김경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종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근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화재 이혜훈 장재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다.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경우 신당 창당에 뜻을 같이 했으나 탈당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탈당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탈당을 선언한 29명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서울(8명), 경기·인천(6명) 등 수도권이 1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5명 ▲경남 3명 ▲대구 2명 ▲강원 2명 ▲울산 1명 ▲전북 1명 ▲충남 1명 순이었다.

여기에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 신당에 합류했다. 김 의원이 비박 신당에 합류하면서 새누리당 탈당과 29인과 함께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의석수는 30석이 됐다. /뉴시스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